

中国にみる〈^{おだまき}苧環の糸〉の系譜

百田 弥栄子*

序

私はこの数年来、中国の三輪山神話を追究している。これまで「中国の苧環の糸－三輪山説話－」（2008年3月『説話・伝承学会創立二十五周年記念論集 説話・伝承の脱領域』岩田書院）と、「中国の三輪山神話－蛇婿入譚と交叉して－」（『説話・伝承学』第十八号 2010年3月）を提出し、その間に説話・伝承学会2009年度春季大会の公開シンポジウム〔三輪山神話〕でパネリストとして「中国の三輪山神話」なる報告をさせていただいた（2009年4月19日 天理大学）。最近では「中国にみる三輪山神話の系譜－〈苧環の糸〉の風景－」を『中日文化研究所論文集』第3号（2015年12月）に提出した。

三輪山神話は『古事記』の「崇神天皇」の条に、

崇神天皇の御代に疫病が流行した。天皇が神意を伺ったところ、大物主神が夢枕に立ち、病魔は自分の意志であること、大田田根子に自分を祀らせれば神の祟りも止まろうと告げた。

そこでオホタタネコを探し出して諸神を祀らせたところ、疫病はぴたりと止んだ。

とあり、オホタタネコが諸神を祀れば、さしもの疫病も影を潜めたという神話である。周知のように、美しい娘の元に夜ごと通い来る男の衣の裾に紡いだ麻糸を通した針を刺し、翌朝糸をたどってみれば、彼の人「美和山（三輪山、御諸山）に至りて神の社に留まれる」オホモノヌシであったという、〈^{おだまき}苧環の糸〉のモチーフが語られている。『日本書紀』によれば、オホモノヌシは「天空を踏みとどろかして御諸山に登って行かれた」美しい小蛇であるという。

そこでこの〈苧環の糸〉に注意して中国の伝承16事例をあげて、西南中国の彝族（彝族系）に集中して語られている点を明らかにし、その分布を地図で示した。

その中で彝族の「^{アマトロ}阿麼特路の故事」と「^{バオトウワン}包頭王村の来歴」の2事例については、昨年現地報告も加えてより詳細に報告した（『中日文化研究所文集』第3号）。雲南省の楚雄彝族自治州の武定県と楚雄市に流布している伝承である。

武定県の「阿麼特路の故事」は糸を辿ってみると大蛇がいて、切りつけると石に変じ、その「蛇が変じた石を山頂に上げてお祀りした」。土地の人々から今なお信仰される阿麼特路岩である。楚雄市の「包頭王村の来歴」は、糸を辿っていくと「龍王廟の烏龍」（烏は黒い意）の衣についていたという。共に〈苧環の糸〉のモチーフを有し、共に龍（蛇）が登場した。

2011年9月に、伝承地の楚雄市と武定県の彝族地区にでかけた。文献とフィールド・ワークから三輪山神話を育んだ土地柄をみていくと、山頂の阿麼特路岩への土地の人々の信仰は篤かった。

*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

1882年朝鮮修信使節全權大使朴泳孝に関する一考察

横田素子*

はじめに

小論は、近代日本において朝鮮貴族¹侯爵に列せられ、嘗ての大朝鮮国人唯一人、日本における貴族院議員を歴任した朴泳孝について、彼が明治15年(1882)に朝鮮修信使節全權大使として来日した案件について、日本の資料から考察を試みるものである。

なお、該件は、朴泳孝が、彼の生涯の終末の地となった日本との関係を構築する起首となったものである。

筆者はこれまで韓国において、拙論3篇を発表する機会を得た。それら小題は「明治外交文書から考察する大朝鮮国の民族造形」²、「徳惠翁主の留学と結婚」³、「日本資料に見る李鍋公殿下の生涯」⁴であり、以上の拙稿に共通して関連する人物が本主題の朴泳孝であった。

彼の本貫は潘南⁵であり、1861年6月12日、京畿道水原において儒者朴元陽の第三子として生まれた。1873年4月、彼が満12歳になる年に哲宗の娘である2歳年長の永惠翁主(1859年生)と結婚し、錦陵尉に封ぜられた。然し、同年7月4日、永惠翁主は逝去してしまった。その婚姻期間は僅か三月であり、朴泳孝自身は12歳22日であった。

それから9年を経過した高宗19年6月9日(1882年7月23日)、大朝鮮国の首府漢城(現在の大韓民国ソウル特別市)において「壬午事変」が勃発した。その基因は、李圻(後の純宗)の誕生によって来るべき日への地歩固めに余念のない母である閔妃とその一族による専横政治にあった。そして、直接の引金となったものは閔氏政権による軍隊の近代化であった。江華条約⁶締結後、日本との結びつきを強め、国内改革を進めようとする動きが起こったが、併せてこれに反発する機運も強く存在していた。件の閔氏政治による開化政策の一つに新式軍隊の創設があった。明治13年(1880)、日本陸軍工兵堀本少尉を招聘し⁷、洋式の操練を取り入れた。併し、旧態然の軍隊を存続しつつ実施した該施策は、俸給や厚生面で新式軍隊を優遇したため、当然の事乍ら、旧軍隊との軋轢が生じていた。さらには開化政策による支出増大によって財政は逼迫し、俸給の支払いをも遅滞させていた。当時の国王高宗の父で排外派の興宣大院君らの煽動を受けた旧軍隊派の不満分子らによるクーデターが壬午事変である。清国の介入によって鎮定されたが、この事変で先の招聘教官堀本礼造⁸らが暴徒らに襲撃され命を落とした。日本公使館も焼き討ちに遭い、14名の日本人が殺害された⁹。この処理として明治15年(1882)8月30日に、以下の「明治十五年京城暴徒事変ニ関スル日韓善後約定」¹⁰、所謂「済物浦条約」を日朝間で締結させたのであった。

*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内蒙古大学 客員教授

朝鮮王朝實錄 粧績織物 複製에 대한 考察

-端宗, 世祖, 成宗實錄을 中心으로-

朴 允 美*

I. 머리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역대 국왕들의 실록(實錄)을 합쳐서 부르는 책의 이름으로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 년간에 걸친 25 대 임금들의 실록 28 종을 통틀어 지칭하는 편년사(編年史) 자료이다. 사관들이 왕의 곁에서 국사를 빠짐없이, 철저하게 기록하였으며, 당대 왕이라도 열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관들은 공정성과 소신에 따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은 활자본(필사본 일부 포함) 2,077 책으로 1973 년 12 월 31 일 국보 제 151 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 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국정사항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상까지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료(史料)이다. 현재 남한에는 정족산본 1,707 권, 1,187 책과 오대산본 27 책, 산업본 등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에 태백산본 실록 1,707 권, 848 책이 보관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원본은 국보 제 151-4 호로 모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없으므로 소장 기관을 중심으로 복제를 하여 전시, 또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세조실록(1417~1468) 32 책, 단종(1441~1457) 3 책, 성종(1457~1494) 58 책의 복제에 앞서 직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물과 유사하게 복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물의 조사는 2012 년 6 월 15 일에 규장각에서 실물을 대상으로

* 檀國大學校傳統衣裝學科 研究教授 · 東아시아歷史文化研究所 教授

동아시아의 한류문화와 한복의 동반성장 방향 모색

李 秉 花*

I. 서 론

최근 한류가 다양한 장르로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고 있음을 일상의 미디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한류문화는 디지털 미디어 덕분에 확산속도를 빠르게 하여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에게도 무척 흥미롭고 호감을 충족시켜주는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K-드라마, K-팝스타(뮤직), K-문화, 한식(비빔밥)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한복도 한류와 더불어 동반성장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복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한류 팬들에게 한복 콘텐츠 인식은 매우 미미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가까운 동아시아지역의 한류 현황을 살펴보고 한복이 한류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의 한류 팬들이 열광하는 콘텐츠와 더불어 한복이 한류의 한 부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한류와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한복이 한류 콘텐츠 내에서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지역은 중국, 일본, 기타동남아 일부지역으로

* BHL 平生教育院 院長

18세기 남성 크라바트에 관한 연구

정 미 진*

오늘날 남성복에서 품위와 개성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아이템인 넥타이는 17세기 크라바트에서 시작되었다. 크라바트는 현대 타이의 전신으로 남성의 미적 센스를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복식미적 접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의상의 복식미는 다른 조형예술에 비해 실용성이란 목적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실용적 목적을 지나 치장하는데 무게를 둔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의상의 복식미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졌다. 그러나 패션소품으로 중요한 위치의 넥타이의 미적 특성을 연구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나 미적 범주를 나뉜 특정의 미를 넥타이에 결부시켜 연구한 자료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성복의 비중있는 장신구인 넥타이의 전신인 크라바트의 우아미를 연구하는 것은 장신구의 의상 소품으로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데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7세기 발생된 크라바트의 종류와 변천을 알아본다. 둘째, 크라바트의 미적 범주를 알아봄으로써 패션소품이 의상에서 지니는 비중을 알아본다. 셋째, 로코코 크

* 송의여자대학교 교수 (崇義女子大學校 教授)

朝鮮時代 中國圖書 流入과 土着化 過程 研究

朝鮮王朝實錄 記事를 中心으로

李 昌 旻*

I. 들어가는 말

도서는 정신활동의 집적물이다. 그 시대정신의 반영물이며 지식과 문화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因子가 된다. 이러한 도서의 출간은 통시적으로는 한 민족사의 맥을 형성하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는 인접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자문화권에 있었던 중국과 조선은 정치적 상황을 떠나 도서를 통한 지적 교류와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져 상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외면적인 도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에 유입된 이후 사회에 미친 영향관계를 검토하는 일은 문화발전사의 규명이라는 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출판문화사적 입장에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한·중간의 출판교류사 검토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 중심으로 중국과 조선의 출판 교류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新丘大學校 미디어콘텐츠과 교수 · 東아시아歷史文化研究所 교수

**МАНЖ ГО УЛСЫН ҮЕИЙН МОНГОЛ ЦЭРЭГТ
ХОЛБОГДОХ ТҮҮХЭН СУРВАЛ ЖИЙН ТУХАЙ**
1930-40-ээд оны Өвөр Монголын морьт цэргийн бүрэлдэхүүны тухай

Өргөдэй Тайван*

Одоо Өвөр Монголын морьт цэрэг анги нэгэнт устаж дууссан боловч, дээр зууны тавиад он хүртэл байлдаж явсан ул мөр нь үүрд балрах ёсгүй юм. Соёлын хувьсгалын дараа буюу 1980-аад оноос эхэлж нэг бүлэг хүмүүс чөлөөлөх дайны үе дэх Өвөр Монголын морьт цэргийн тухай аман түүхийн материалыг эмхтгэн түүвэрлэх ажлыг гардан гүйцэтгэжээ. Эдгээр материал нь Коммунист чиглэлийн хувьсгалт уламжлалын хичээлийн материал төдийгүй, орчин одоо үеийн Өвөр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г судлахад мөн чухал баримт болох нь дамжиггүй юм.

Гэвч 1945 оны 8 сараас өмнөх түүхийн баримт олдвор туйлын хомс мөртлөө бусад зарим шалтгаанаас болсон бололтой, Өвөр Монголын морьт цэргийн түүх гэхсээр 1945 оноос л эхэлж яригддаг. Харин түүнээс өмнөх үед холбогдох түүхийн агуулга нь тэр чигээрээ байхгүй юм.

Хэн бүхэнд тодорхой байдаг шигээ хорьдугаар зууны эхэн буюу Чин гүрний эцсийн жилүүд дэх нийгмийн зөрчилдөөн, ялангуяа үндэсний эсэргүүцэл улмаар хурцдан, Монгол морин отьрядыг байгуулан, олон анги зэвсэгт хүчин Ар Өвөр Монголын эл нутагаар сөргөлдөж байжээ. Түүхийн эрхээр 1932 онд хуучин Манжийн нутаг (одоогийн Хятадын зүүн хойд орон)-д Манж Го улс буй болжээ. Японы хүчээр буй болсон Манж Го улс, Өвөр Монголын зүүн бүсийг эрхшээлдээ оруулсан юм. Яг энэ үед зүүн Монголоор тархаж байсан Монгол морьт цэрэг анги буюу партизан морин отьряд хураагдаад Хянган цэрэг бүрэлдэж эхэлжээ. Энэ нь даруй Манж Го улсын цэргийн бүрэлдэхүүнд багтаж буй Хянганы сэргийлэн бэлтгэсэн армийн эхлэл болох ажээ.

Эдгээр явц ба үүнээс өмнөх түүхэн байдлыг тэр үеийн Японы талынхан тэмдэглэж үлдээжээ. Эдгээр түүхийн баримтын нэлээд нь 1945 оны дайны галд өртөж сүйдсэн боловч үлдэж хоцорсон зарим зүйл нь одоо Японд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на. Түүхчид ийнхүү ховор нандин зүйлсийг ашиглан Өвөр

* Өвөр Монгол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түүхийн салбарийн профессор,
Японы зүүн Азийн түүх соёлийн институтийн профессор

别本《格体全录》蒙古文原文目录及其汉译

周 太 平*

笔者新发现的别本《钦定格体全录》(deger-e-eče toytaγaysan dürsü-yin tus büri-yi büridkegsen bičig)是约在十八世纪初,康熙年间完成的蒙古文医学文献。就目前所知,该文献系蒙古文《格体全录》之最早版本(清刻本),一种极为稀见的存世古籍。2015年末笔者在在一位先哲旧藏中偶然发现,一共四册。笔者出生于蒙医世家,多年来有一种收藏蒙古医籍文献的个人爱好,亦从事蒙古文历史文献工作。但从未听说过此书,因此当时非常兴奋,当然立即查询相关书志信息。查阅《中国蒙古文古籍总目》、《中国蒙古文图书综录》、《内蒙古192种地方文献编目分类索引》、《蒙古国基本书志信息库》、《蒙古国所藏蒙古文抄本目录》等诸种目录,都未见著录此书。对蒙古文医学文献专门领域的先行研究作进一步确认也未见有人利用。就目前所知,该文献系国内留存孤本。而当时发现时已第一册残肢不全,所缺文字无法确认,其他各册完好。后来,经研究得知日本学者羽田明曾言蒙古存有一种《格体全录》蒙古文版本,但无法确定现存状况。笔者于2016年9月赴蒙古国查找,亦久觅而未得。幸运的是,在乌兰巴托到私人家访书时发现一本蒙古文手抄本—《钦定格体全录》(deger-e-eče toytaγaysan dürsü-yin tus büri-yi büridkegsen bičig)残本,只一册,非常珍贵。当即仔细考辩,判断这应当是如上所指清刻本的第一册手抄本。虽有一些残损,但恰好能补缺,即以此本还原上述残肢不全的第一册所缺文字。

据《中国蒙古文古籍总目》第1628-1629页著录,中国国家图书馆、内蒙古自治区图书馆、辽宁省图书馆、青海省图书馆、内蒙古大学图书馆、内蒙古师范大学图书馆、中国社会科学院民族所图书馆、内蒙古社会科学院图书中心等处存有《割体全录》(jarliγ-iyare toytaγaysan γadayadu ulus-ača ulamjilaysan ge ti čiuwan lü bičig),卓特巴扎普主编,民国己巳年铅印本,四册,20×12.8cm线装本。同上总目第1629页另录,辽宁省阜新蒙古族自治县蒙医研究所存有《割体全录》(jarliγ-iyare toytaγaysan γadayadu ulus-ača ulamjilaysan ke ti čiuwan lü bičig),卓特巴扎普主编,民国石印本,四册,26×15.5cm线装本。又,1986年,巴拉敦敖斯尔出版《各体全录》(jarliγ-iyare toytaγaysan ge ti čiuwan lü bičig),约8.1万字,由内蒙古科学技术出版社出版,系上述民国己巳年铅印本的整理校订本。

根据笔者对上述诸种本子的调查,基本可以确定国内所藏本均属于同一版刻系统,即民国时期的满文本之译本。而远早于此等译本的清原刻本乃一独立系统的本子。尽管在内容上有很多相同之处,但在书名、版本类型、文体、篇幅等方面存在诸多差异。清原刻本的内容远多于民国译本,篇幅几乎多一倍,近20万字。由用语方面也可以推知,该文献是用清代蒙古新书面语写成,这对蒙古文医学、解剖学用语及蒙古书面语发展史研究无疑有重要价值。

* 内蒙古大学蒙古历史学系 教授·日本东亚历史文化研究所 教授

试论郭道甫史料的释读问题

朝格满都拉*

郭道甫在其短暂的人生中周旋于日、俄、中、蒙之间，不仅写下若干阐述蒙古问题的专著，也留下为数不少的史料。这些史料中有些是他本人在监禁时期的口供资料，有些是他接受记者或社会名流采访时的口述资料，也有些则是他的革命“战友”通过回忆所记录下来的。

因来源不同，郭道甫史料中就同一个事实有时存在不同说法，甚或郭道甫本人在不同场合中的表态或陈述也不尽相同。如果偏信其中某一史料可能会得出不同甚至相反的结论，因此准确释读郭道甫史料是非常有必要的，本文对如何实时准确释读郭道甫史料提出自己初步意见，恳望读者予以指正。

（一）对上乌金斯科布里亚特蒙古会议的不同描述

1918年11月末，郭道甫以客人身份参加了德都——乌德（上乌金斯克城——笔者）召开的由白党主持的布里亚特蒙古会议。郭道甫口供称：会议上主要讨论了宗教戒律、巩固民族运动等问题。参加会议期间郭道甫结识了仁钦诺、散丕勒等民族主义者。在布里亚特和蒙古中开展民族工作方面他们达成了共识。¹

1923年，郭道甫在其撰写的《蒙古问题》中谈到谢米诺夫“泛蒙古”独立活动：自一九一七年俄国革命以来，白党之谢米诺夫将军占领蒙古之故乡贝加尔州，反抗红党并继承帝国政府之旧业，联络各处蒙古自负扶持其复国之责任。一九一八年冬，藉乌金斯克布里亚特蒙人会议之机会，曾遣人前往各处蒙古，劝其派代表赴会。届期由外蒙、内蒙、呼伦贝尔及日本均有代表与会，是为全蒙第一次会议。²就本次会议的意图，郭道甫总结说：“其结果不过提议各处蒙族，此后应当互相联络，由文化上着手团结，遇机会时设法运动，独立统一数条而已”。³

二木博史援引《泛蒙古主义运动史及仁钦诺所发挥的作用》一文，对参加本次上乌金斯克城会议的呼伦贝尔代表及其提案进行论述：“参加这次上乌丁斯克大会的呼伦贝尔代表有3人，即郭道甫、苏鲁丰嘎和另一人。他们提到美国总统威尔逊在同一年1月发表的《十四项和平原则》，提出统一整个布里亚特人（俄罗斯的布里亚特人、呼伦贝尔的布里亚特人）和蒙古人，创建一个独立国家。该提案由特别委员会进行了审议讨论。结果，大会原则上采纳了该提案。”⁴

郭道甫不仅在受审过程中隐瞒了自己创建独立大国提案，还在《蒙古问题》中避重就轻地描述本次会议的主要目标。如果审讯中有意不谈自己带明显泛蒙古主义色彩的提案是出于保护自己的话，汉文著述中轻描淡写的表态更是为了避免中国当局的警惕。

* 内蒙古自治区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 副研究员·日本东亚历史文化研究所 教授

金元之際的雁北漢人軍侯

——以韓、高二氏為考察中心

鄧 進 榮*

引 言

金元之際的漢人世侯問題的研究自清人錢大昕以來，討論者日夥，相關問題的探討已相當深入，¹不過對此問題的研究主要集中在幾個所謂擁有“跨州連郡”勢力的大世侯，諸如真定史氏、順天張氏、鞏昌汪氏、東平嚴氏及益都李氏等。相較而言，對中小世侯的研究則顯得相當薄弱，究其原因，不外乎兩點，其一、現世所存史料過少；其二、此類中小世侯對蒙金戰局及當時社會的影響遠遜於那些“跨州連郡”、主宰一路乃至數路的強豪。

前揭鄧氏一文探討了元代陽城鄭氏家族的基本情況，作為典型的中小世侯，其家族部分成員的事跡尚有史傳及碑志可稽，不難考索。而金元之際的山後諸軍侯²事蹟幾不存於史傳，見載於碑志者亦屬寥寥，今就地志及相關文集的隻言片語連綴成文，擬對雁北地區³的兩位漢人軍侯以及他們家族的事蹟稍加考索，希圖能夠對金元之際的中小世侯的研究有所深化與發展。

一、應州韓氏

應州，金承遼制，設彰國軍節度，清人顧祖禹論天下地理形勢，語及應州時稱：“南控雁門，北接云朔，地勢平衍，易於馳突，守備要區也”。⁴顧氏所論之“守備要區”雖就明朝形勢而言，不過應州作為南通代地（包括代縣、繁峙）北界大同的要地，其自遼金以來便具有重要的戰略地位，此殆無疑義。金大安三年（1211），蒙古軍侵入山後之地，應州亦在被掠之列，不過該年蒙古軍在金朝境內也只是徇略一過，并未攻佔城池，作長遠計劃。應州遲至貞祐初年方陷於蒙古，此可從《金史》的相關記載中獲悉若干信息。《金史·完顏伯嘉傳》載，貞祐初年，副統李鵬飛誣殺彰國軍節度使牙改，⁵則至少在貞祐元年（1213）以前，應州應還為金朝所有，金廷尚在其界內設官治理。《完顏伯嘉傳》又載，斡勒合打在貞祐四年（1216）三月被任命為彰國軍節度使、宣撫副使，似至貞祐四年，金朝還掌控著應州，但是依《金史·斡勒合打傳》所記，此次斡勒合打所獲任命的彰國軍節度使之職乃是遙授，故此時的應州應該已經被蒙古軍攻取。另據吳僧哥傳記載，貞祐元年，蒙古軍攻略河東南北路及西京路諸地，朔、應等州均被蒙古軍攻破，朔州雖一度為金朝將領吳僧哥所收復，然鑒於其周邊諸州均已被蒙古軍襲取，朔州已然成為一座孤城，金廷要求吳僧哥把朔州的民眾南遷到河東的嵐州、石州、隰州等地，時在貞祐二年（1214）十二月乙酉。⁶據之，則應州或在貞祐二年年年底前已被蒙古軍徹底攻佔。

* 內蒙古大學蒙古歷史學系 博士研究生

An Attempt in the Comparative Study of Mongolian Literary Works
—A Comparative Study of Corpus of Two Works:
“DELGER HANGGAI” and “TVNGGALAG TAMIR”

Uyanga*

Abstract

Using corpus analysis method, this paper has made comparative analysis of two literary corpus from the aspects of lexical density, average word length, word frequency, conjunction, etc. Based on the Inner Mongolian literary work “DELGER HANGGAI” and the Mongolian literary work “TVNGGALAG TAMIR”, this paper conducts primary statistical analysis of the above aspects of data though the use of statistical tools such as Wordsmith.

Key words : comparative analysis, corpus, corpus analysis tool

1 Introduction

As the deep development of the Mongolian information processing work, its coverage and application areas are also constantly expanding. While people mainly used this technique for linguistic studies ten years ago, its areas involved in recent years have been extended to various fields. Such as literature, history, folklore, etc. The Inner Mongolian literary works “DELGER HANGGAI” and the Mongolian literary works “TVNGGALAG TAMIR” mentioned in this paper are the classic works of Mongolian literature. People often compare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present different views in their Original relations and inheritance, however, no one could persuade each other based on statistical data. This paper makes a primary study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corpora by using the corpus analysis software such as Wordsmith, Microsoft Office Access and Concapp V4. It hopes to carry out data analysis of the two literary works using the corpus analysis software, in order to reveal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use of vocabulary in the two works.

* Doctoral student in the School of Mongolian Studies, Inner Mongolia University

近代蒙古问题的重要文献

—简评《共产国际与蒙古：档案汇编》—

吉日嘎拉*

上世纪九十年代初，俄罗斯开始对原苏联机密档案进行解密工作。俄罗斯和蒙古研究人员从中筛选整理了共产国际与蒙古有关的一些重要历史文件并内部发行，其中一项重要成果是一部档案汇编本——《共产国际与蒙古：档案汇编》（Коминтерн Ба Монгол / Баримтын эмхэтгэл）。这些档案记录了当时苏联、共产国际与蒙古之间的诸多历史问题，给蒙古近代史研究提供了新材料。

档案整理工作由俄罗斯现代史资料保管与研究中心、蒙古人民革命党中央档案馆联合进行的。该汇编中包括许多以往未被人们所知的历史信息，不仅可以给我们更全面的把握共产国际对蒙古政策的重点、目标及其形成与变化的过程，而且还可以更深入地了解联共（布）和共产国际领导人在不同历史时期对蒙古的军事、政治、经济方面的态度和策略。便较清晰了解共产国际代表、顾问及特派人员在蒙古活动的具体情况及他们之间的共识和分歧，从而能进一步展开共产国际与蒙古问题以及一些关键人物的研究。

一、《共产国际与蒙古：档案汇编》概貌

共产国际作为国际革命的无产阶级组织，于 1919-1943 年间，先后在相关各国设立活动据点。就蒙古地区而言，漠南、漠北、卡尔梅克、布里亚特、卡尔梅克及图瓦等地均有共产国际特派机构或人员。尤其蒙古人民革命党、蒙古革命青年团、内蒙古人民革命党都与共产国际有密切的联系。《共产国际与蒙古：档案汇编》主要涉及 1920. 8. 17-1935. 9. 28 时间段，其大致内容有以下几点：

首先，共产国际对蒙古实施的政策过程、方法、目的以及活动策划、协商问题内容、谈判记录等等。其次，收编了共产国际代表与蒙古人民革命党之间的通信记录，有的标着“秘密、机密、绝密”等字样。这里，记录在共产国际指导下的蒙古人民革命党一系列行动，例如：对于蒙古的宗教阶层、封建官僚、基层牧民等社会各阶展开的举动，还有蒙古人民革命党党内的分裂、右派问题的处理、对外联络等具体史事。能看到一些历史人物，如张作霖、冯玉祥、敦德布、郭道甫、白云梯、宝音讷莫夫、丹巴道尔吉等人的鲜为人知的情况。

在蒙古活动的共产国际具有双重角色，一个是扮演国际共产主义运动的领路人、指导者，再一个是代表苏联老大的意向执行。

俄蒙学界经过多年的合作工作，收集整理了 83 份档案，其中，包括俄罗斯现代史文献保管

* 内蒙古大学蒙古历史学系中国近代史专业 博士研究生·赤峰学院教师。

武定白塔

何 大 勇*

来到武定大地，有一个造型独特的白塔会深深地吸引着文人之心。当地人亲切地称呼它为“文笔塔”。这个白塔附近没有寺庙，远望犹如一支巨笔立于天地间，成为该地一道绽放异彩的人文景观。

白塔位于城之东山之巅 2223 米处，当地把该山称为白塔山或文笔山。一山两名，可以看出有两层意思，一是从颜色与形状来取名。二是根据承载的内容“读书考功名”来取名。

武定白塔前面原来有碑，但后来被盗不知所终。所以导致在建塔时间上有两种观点，一种观点认为是宋代修建。据民国资料载：“宋时罗婺部长建。”依据此资料判定该碑的年代应为宋代大理国时期修建。第二种观点认为是明代修建，在《白塔》碑的另一侧，立有两块碑，一为《武定白塔》碑，为武定县人民政府立碑，日期为 1986 年 2 月 1 日，认为该塔建于明正统三年（1438），明代凤氏土司建。二为《文笔山白塔》碑，立碑时间为 2013 年 11 月 1 日，认为是明正统三年（1438）修建，提出该塔为明代凤氏土司建的风水塔。从三块碑的时间上来看，上世纪八九十年代所立碑是为武定县重点文物保护单位。而 2000 年以后的立碑则是将其提升为楚雄彝族自治州文物保护单位，提高了塔的文保规格和等级。

石塔下面未发现地宫，曾有不法分子挖开下面但无任何物品。塔顶为葫芦形，彝族有葫芦生育崇拜，是民族文化融入到塔身中的具体体现。白塔造形为方形砖石结构塔，一到二层为石条砌成，三到七层为砖砌，历经沧桑而不倒。当地人说，石条与石条、砖与砖的结合部位是用豆腐水加猪血再加入石灰、砂子凝结而成，说明修建之时已经有很高的建筑水平，已经拥有烧砖技术、石匠、结构工程师、砖石粘接材料等方面的系统技术。从历史来看，昆明《重建东寺文笔塔暨忠爱金碧三坊碑记》载：“塔造于南诏弄栋节度使王嵯巛手，为文宗在位三年（827-839）。”南诏弄栋节度使王嵯巛在 829 年率兵攻打成都得胜，带回来许多能工巧匠，其中罗婺部也是部队的成员之一，所以能够营造。

白塔可能也与这些能工巧匠有所关系。从古驿路视角来看，武定是南丝路的重要驿站之一，随着这条线可以看到有诸多白塔散落在重要交汇处，从武定过金沙江有南诏时期第七代国王南诏景庄王（829—874）在西昌景净寺建的建昌白塔。

* 云南民族大学云南省民族研究所研究员·东亚历史文化研究所 教授